



IT

IT	삼성전자·SK하이닉스, 호남에 첫 패키징 공장 짓나...입지 놓고 설왕설래 https://buly.kr/6MtqBGh
	삼성 광주·새만금, 하이닉스 광주·무안 거론 '삼성전기도 세종사업장' 투자 검토
	서플러스글로벌, ALD·AI 장비진단 기술 특허 확보 https://buly.kr/Aas1t9H
반도체 장비 업사이클링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	

산업재

조선/기계/방산	미국-이란 전쟁, 106일 만에 끝나다...트럼프 "호르무즈 '통행료 없이' 개방" https://buly.kr/9BXy2l4
	미국과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19일(현지시간)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(MOU) 서명을 예고
건설/부동산	레미콘 노조 파업 철회...운송단가 4,200원 인상 https://buly.kr/4bkGkgS
	전국레미콘운송노조, 8일부터 시작된 파업 종료. 운송비는 내년 2월까지 향후 8개월간 회당 4200원 인상, 이후 4개월간은 5200원으로 인상폭 확대
철강	美 싱크탱크가 주목한 고려아연, '탈중국' 공급망 역할 핵심 부상 https://buly.kr/9tCzX3
	중국 중심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 군사·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

소비재

자동차/모빌리티	기아, 佛 '유로사토리 2026'서 타스만 군용 지휘차 등 특수차량 풀라인업 선보 https://buly.kr/E7BBVJI
	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다양한 군용 차량을 선보이며 방산 경쟁력 홍보
	현대차 노조, 노동쟁의 조정 신청...24일 파업 찬반 투표 https://buly.kr/7bJ9Ccr
최근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초읽기	
화장품	아모레퍼시픽, 시로 '얼굴 노화 지도' 분석..."피부 선제 관리" https://buly.kr/4xZmV3J
	아모레퍼시픽이 인공지능(AI) 기반 피부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얼굴 부위별 노화 패턴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발표
의료기기	휴이노 "환자 모니터 시술루션, 고대안암병원 공급" https://buly.kr/4xZmV4t
	휴이노와 유한양행은 '메모 큐(MEMO CUE)'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·심장혈관흉부외과에 공급할 예정
제약/바이오	美, 바이오시밀러 '인터체인저블' 폐지 추진...허가 제품 모두 자동 대체 가능 https://buly.kr/5UK3W54
	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해 상호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 절차,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기대
	유한양행, 알레르기 신약 후보 '레시게르셉트' 1b상 안전성·IgE 억제 확인 https://buly.kr/BIX3t1M
유한양행이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'레시게르셉트'의 임상1b상에서 반복투여 결과, 혈중 유리 IgE가 25ng/ml 미만 유지 기간 15일(vs.0일) 확인	
음식료	오리온 '황치즈칩' 추가 출시...3차 물량, 또 품질 대란 https://buly.kr/BIX3t23
	오리온의 한정판 제품 '촉촉한 황치즈칩'이 세번째 출시에도 준비된 38만 박스 물량은 2주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완판, 소비자들의 구매 경쟁은 여전히 치열

서비스

인터넷/게임/레저	2030년 전군 AX 목표...네이버클라우드, 국방 AI 풀스택 전략 https://buly.kr/4xZmV6J
	네이버클라우드가 자체 개발한 경량 옴니모달 모델 'HyperCLOVA X SEED 4B'를 공개하고 국방 AI 활용 사례와 소버린 AI 기반 국방 AX 로드맵을 선보임
	붉은사막, 게임플레이 영상 콘테스트 진행...7월12일까지 https://buly.kr/DwGOWkA
펄어비스가 '붉은사막'의 게임플레이 영상 콘테스트 '바운드 디 어비스: 커뮤니티 챌린지'를 진행	
운송	아시아나항공, 에어부산 영구전환사채 1000억원 전환권 행사 https://buly.kr/4xZmUst
	에어부산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5년 5월 인수한 에어부산 제 6회 영구전환사채 1000억원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결정
금융	토스뱅크, 신용대출 최대 한도 1억원으로 제한 https://buly.kr/2JqPzzz
	토스뱅크, 신용대출 최대 한도 1억원으로 제한 방침. 인터넷은행도 대출 문턱 상향
	케이뱅크, 신용대출 축소 정책 발맞춰 신규 마통 중단 https://buly.kr/6te7VGd
	케이뱅크,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일시 중단 방침. 고액 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도 내부 논의 중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